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HANSUN PREMIUM REPORT

[주 제] 바람직한 한중관계의 모색

[발제자] 전가림 호서대학교 교수

[일 시] 2021년 5월 13일(목) 오전 9시 30분

[장 소] YouTube 한선TV 채널



☒ 문자 후원

#7079-4545

제368회 정책세미나 주요 내용

요 약

- 내년이 한중국교수립 30주년이다. 30년간의 성과는 괄목할만하다. 한중관계는 선린우호협력관계에서 시작해 현재는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발전했다. 한중 양국의 무역규모증대에 따라서 상호 무역비중도 높아졌다. 한중 양국의 발전과정에서 우여곡절도 적지 않았다. 사드 배치에 따른 갈등이 그러하다. 한중관계는 경제교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안보문제가 이를 지배하는 특성

을 갖고 있다.

- 한중관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려면 경성관계(경제·군사)뿐만 아니라 연성관계(사회·문화)도 함께 발전해야 한다. 또한, 가변과 불변의 요소를 구분하여 접근해야 한다. 교류협력과 같은 가변적인 요소는 대화와 절충으로 해결될 수 있다. 문제는 중국이 불변 요소인 안보에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역사 등 정체성까지 왜곡하는 것이다. 이럴수록 우리나라는 국가 정체성을 확고히 하여 대중외교에 나서야 한다.

◆ 한중관계 회고와 평가

- ◆ 1992년 8월 24일 한국과 중국은 정식으로 국교를 수립했다. 그동안 한중 양국은 4단계의 과정을 거쳐 왔다. 가장 낮은 단계는 수교 당시의 ‘선린우호협력관계’이다. 다음 단계는 동반자 관계이다. 동반자 관계는 수식어에 따라 의미가 상당히 달라진다. 한·중은 1998년도와 2003년도 모두 동반자관계였으나 98년도의 수식어는 ‘21세기를 향한 협력동반자관계’이고 2003년은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로 발전했다. 그러나 이후,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다시 높아지고 경제적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발전했다.
- ◆ 한국과 중국의 무역은 과거에 수직적 관계였다가 보완적 관계, 지금은 경쟁적 관계로 들어섰다. 지난 30년 동안 한국은 중국경제발전에 상당한 조력자의 역할을 해왔고 현재도 그렇다. 2004년부터 한국은 중국에 대한 수출과 수입, 대외 투자 1위 국가이다. 중국 역시 수입의 10%가 한국이다. 이렇듯 한중은 무역부문에서 매우 밀접한 관계가 되었다. 남북 간 비교에서도 한국은 중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국가이다. 우리는 수교 이후 중국과 공동 발전을 추구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혈맹과 준동맹의 지위를 가졌음에도 중국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비대칭적이다. 한국은 중국의 발전에 조력자 역할을 했지만 북한은 중국의 발전에 유효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북한은 중국발전의 조력자가 아닌 수혜자 입장을 벗어나지 못했다.
- ◆ 사드 정국으로 인해 한중관계가 악화되었다. 사드 배치에 대한 국론이 분열되면서 한국은 대중국 외교에서 수세에 몰리는 현상을 낳았다. 사드 정국에서 국론 분열은 대중외교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쳤다. 이 상황에서 ‘경제는 변수, 안보는 상수’라는 경제와 안보 관계가 형성되었다. ‘경제는 중국에, 안보는 미국에’라는 소위 경중안미(經中安美) 용어가 등장했다. 한중 갈등으로 안보와 경제는 다른 나라에 의존해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 중국의 세계관 세계의 중국관

가. 중국의 부상

- ◆ 인접국인 한국이 중국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중국은 현재 세계 경제 1위, 외환 보유액 1위 등 강력한 위치에 있다. G2로 이름을 올린 중국은 세계 국제관계를 좌지우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나.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외교 원칙

- ◆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3단계의 대외발전전략을 펼쳤다. 초창기에는 경제 기반이 없었고 국제적인 규범에 익숙하지 않았으며 사회주의 국가 체제라는 한계 등으로 인해 ‘도광양회(韜光養晦)’라는 다소 수세적인 전략을 취했다. 다음 ‘유소작위(有所作爲)’ 단계에서 세계외교에 나서기 시작했지만 제한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 후, 중국의 대외적인 위상이 증대되면서 ‘책임대국론’을 얘기하기 시작했다. 시진핑 체제에 들어서서 중국은 과거의 번영했던 시기로 돌아가려는 야심 찬 계획을 내놓고 있다.

다. 중국 외교의 지향

- ◆ 중국은 국제관계를 다른 나라와 다르게 본다. 이는 전통적인 측면과 현대적인 측면이 혼재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의 대외정책은 세 단계의 경로가 있다. 현재 중국은 그중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서 있다.
- ◆ 첫 번째 단계는 ‘세(勢)’이다. 두 번째는 ‘술(術)’이고 마지막 단계는 ‘치(治)’나 ‘법(法)’이다. ‘세(勢)’는 역량 외교이다. 중국은 이미 G2국가로 성장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압도할 수 있는 ‘세(勢)’의 단계에 들어섰다. 중국은 현재 ‘술(術)’의 단계이다. 이는 상대방이 나의 전술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상대방을 혼란시켜서 자기의지를 관철시키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대외적인 행보가 예상 불가능해야 대외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역량 투사가 가능하며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인 ‘법(法)’은 자기중심의 세계적 표준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 ◆ 한중관계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려면 중국인의 세계관과 세계인의 중국관을 봐야 한다. 중국인의 세계관은 굉장히 공세적이다. 세계인의 중국관을 보면 과거 2000년대 초반, 중국이 반테러 진영에서 미국과 방향을 같이 할 때는 굉장히 우호적인 국가로 평가됐다. 그러나 세계의 기준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과 코로나바이러스를 유발한 중국의 대응으로 인해 선진국에서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시진핑은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중국의 꿈을 실현하여 미국을 앞지르겠다는 욕심만 내세우고 있다.

◆ 바람직한 한중관계

- ◆ 먼저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로 구분하여 한중관계를 봐야 한다. 경제적, 군사적 측면의 경성관계(하드파워를 통한 관계)는 양국이 의존과 협력을 통해 발전해왔지만 연성적인 부분(소프트파워를 통한 관계)인 의식과 사회, 문화 측면에서는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한중관계가 발전하려면 연성관계가 경성관계에 준할 정도로 관리되어야 한다.
- ◆ 두 번째는 가변과 불변의 요소를 구분하여 한중관계를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가변적인 요소는 대화와 절충으로 해결될 수 있다. 교류관계는 두 나라가 협력하면 가능하다. 문제는 안보와 정체성의 불변적인 요소이다. 중국은 한복, 김치와 같은 한국의 국가 정체성을 왜곡하거나 제거하려한다. 문명국가라면 한 나라의 역사와 전통의 정체성을 존중해야 한다. 그런데 중국은 정체성까지 허물려는 행태를 보인다. 경제·군사·외교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이다. 힘을 지나치게 과시하려 한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국가 정체성을 강화하고 할 말을 하는 중견강국의 외교를 펼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이치적인 관계로 변화시켜야 한다.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꼭~ 한선을 지지해주세요.

(한 통 2,000원)